

제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문제



2024. 06.

대 회 집 행 위 원 회

【 문 제 】

-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원고)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액정표시장치용 광학필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산업별노동조합인 대한금속노동조합의 영훈하이테크 지회(피고1), 영훈하이테크 지회장(피고 2, 하이테승) 및 지회 소속 평조합원들(피고 3 내지 7, 각 송일섭, 박내군, 배추한, 이복신, 유은분)을 상대로 생산설비 및 원재료 반출 방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여러분은 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를 대리하게 될 변호사이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사실관계는 아래 **[사실관계]**와 같고, 이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 또는 피고는 7쪽 이하의 첨부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희망 소속 변호사인 여러분을 찾아와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다.
- 여러분은 다음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원고 또는 피고 중 일방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하였음을 전제로 할 것
 - 2. 전 항의 선택에 따라 원고의 소장 또는 피고의 답변서를 각각 작성할 것
 - 소장 또는 답변서에는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원인, 항변, 법률상 주장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요건과 근거 등에 관하여 상세히 논리적으로 전개할 것
 - 소장 또는 답변서는 대법원 규칙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참조하여 15장이내로 작성하되, 대회규정 “11. 서면 작성 방법”을 준수할 것
 - 소장 또는 답변서의 당사자표시는 이름만을 기재할 것
 - 주어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 외의 가정적 사실관계를 상상하지 말 것
 - 손해액의 산정 방식에 대해 원피고는 다투지 않을 것.

【 유의사항 】

- 공고에 제시된 문제에 지시된 사항에 따라 소장, 답변서 등 수행 과제의 원고와 피고의 각 서면을 모두 제출할 것
- 제출하는 소장 또는 답변서의 변호사 이름은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나대리”로 기재하되, 그 성명 옆에 괄호로 참가팀의 참가번호를 기재하고, 서면 자체에는 참가팀의 소속 대학원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사실관계 】

- 일본 오사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영훈전공(이하 ‘영훈전공’이라고 함)은 액정 표시장치의 주요 부품인 광학필름(편광판)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 영훈전공은 국내의 액정표시장치 제조사들로부터 광학필름(편광판)에 관한 주문량이 증가하자 생산·납품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99. 10. (주)오성전공(이하 ‘오성전공’이라고 함)을 100% 자회사로 설립하였다(오성전공 공장의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이다). 오성전공의 생산·납품량만으로는 제조사의 주문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자 영훈전공은 추가 생산을 위하여 경상북도 구미시에 (주)영훈하이테크(이하 ‘영훈하이테크’라고 함)를 100% 자회사로 설립하고 생산라인을 갖추었다.
- 영훈하이테크와 오성전공은 모회사인 영훈전공으로부터 광학필름 생산을 위한 핵심 부품을 구입한 뒤 이를 가공하여 국내 제조사에 납품하였다.
- 영훈하이테크 및 오성전공은 설립 이래 한국인과 일본인 각각 1명씩 공동대표 이사 체제였는데, 두 회사의 일본인 대표이사는 ‘무라카미 하루토’로 동일 인물이었다.
- 이들 회사 이외에도 영훈전공은 국내 영업과 생산 기획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2004. 2. 1. (주)한국영훈전공(이하 ‘한국영훈전공’이라고 함)을 100%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 영훈하이테크의 주 납품처인 YJS디스플레이가 생산 공장 일부를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영훈하이테크의 주문량도 감소하였다. 주문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훈하이테크는 2018년과 2019년 두 번에 걸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영훈하이테크 지회의 조합원은 500여 명에서 50명 남짓으로 줄었다.
- 이 과정에서 영훈하이테크 지회장 하이테승은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영훈전공이 영훈하이테크를 폐업하고 생산물량을 전부 오성전공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회사 고위 관계자로부터 듣고 희망퇴직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 영훈하이테크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20. 1. 원래 오성전공이 생산·납품하기로 한 주문량의 일부를 영훈하이테크가 받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중국의 광학필름 생산 공장들의 운영이 정지되자 2021. 9. 영훈하이테크에서 생산량을 늘려서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영훈하이테크의 경영도 정상화되어 대규모 신규 채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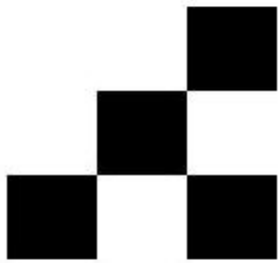
필요하였는데, 영훈하이테크는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할 뿐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다.

- 영훈하이테크 지회는 2022년 단체교섭부터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를 비롯하여 고용안정 보장 및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였지만, 영훈하이테크의 고위 관계자는 영훈하이테크 지회가 대한금속노동조합이라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하였다.
- 실제로 영훈하이테크는 공장을 완전히 가동할 수 있는 생산물량의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영훈하이테크는 영훈전공과 한국영훈전공이 수시로 배분하는 물량만을 생산할 뿐이었다.
- 영훈하이테크 지회가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자 영훈하이테크의 생산 계획이 취소되고 오성전공에 생산 물량이 배정된 적도 있었다.
- 2022. 10. 4. 영훈하이테크 구미공장의 생산동(棟)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생산설비 일부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장 가동은 전면 중단되었다. 영훈전공과 한국영훈전공은 생산 재개를 위한 복구 일정과 비용, 향후 주문량 전망 등을 바탕으로 생산 재개를 위하여 복구할 것인지 아니면 영훈하이테크를 청산·정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 영훈하이테크는 공장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영훈하이테크가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금은 약 200억 원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생산설비를 복구하는 데 충분한 금액으로 추정되었다.
- 화재 발생 당시 영훈하이테크는 YJS디스플레이와 2023. 12. 31.까지 광학필름(편광판)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 영훈하이테크는 설립 후 화재 전까지인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8년 동안 총 7조 7천10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매출의 70%는 YJS디스플레이의 주문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천983억 원인데, 이 중 영훈전공이 100% 주주로서 받아간 배당금은 1천734억 원이었다.
- 영훈하이테크 지회는 모회사인 영훈전공이 영훈하이테크의 청산 가능성까지 포함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2. 10. 10. 영훈하이테크에 대해서 긴급히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지만, 영훈하이테크는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 지회는 공장 생산 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영훈하이테크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지만, 지회 관계자들은 영훈하이테크 공장을 복구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영훈하이테크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들었다.
- 영훈하이테크는 YJS디스플레이와 계약한 광학필름(편광판)을 생산·납품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훈전공, 오성전공과 협의한 결과, 오성전공이 광학필름(편광판)을 생산·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2022. 10. 13. 오성전공와 YJS디스플레이 간에 새로운 생산·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오성전공이 YJS디스플레이에 납품하기 위한 광학필름(편광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를 증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2022. 10. 14. 영훈전공, 영훈하이테크, 오성전공은 영훈하이테크가 영훈전공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재료와 함께 영훈하이테크의 잔존 생산 설비를 해체하여 오성전공으로 신속하게 유상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 영훈하이테크와 오성전공은 원재료와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성전공이 추가 생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영훈하이테크가 YJS디스플레이 납품용 광학필름(편광판)의 생산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훈하이테크 소속의 생산 관리자 및 엔지니어 10여 명도 오성전공으로 전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원재료와 생산설비의 이전에 관한 비용은 영훈하이테크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영훈하이테크는 2022. 10. 15. 원자재와 생산설비의 해체·이전 및 운반에 관한 계약을 연심용역과 체결하였다.
- 영훈하이테크의 원재료와 생산설비를 오성전공으로 양도하고 오성전공이 추가 생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영훈하이테크 지회장은 2022. 10. 14. 단체교섭을 영훈하이테크에게 요구하였지만, 영훈하이테크는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하였다.
- 영훈하이테크 지회는 2022. 10. 14.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100%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즉각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지회장 하이테크를 비롯한 조합원 50여 명은 공장 부지 내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는 가건물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 영훈하이테크 지회의 조합원들이 2022. 10. 16. 공장 출입구 앞에서 집회를 가지던 중 원자재와 설비의 반출 등을 위하여 공장 내로 진입하려던 연심용역의 직

- 원들과 차량 및 장비를 발견하고 진입하려는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을 저지하였다.
- 영훈하이테크 지회의 조합원들이 출입을 저지하자 별다른 충돌 없이 연심용역의 직원들과 차량 등은 철수하였다. 이후 연심용역의 직원들은 차량 및 장비와 함께 매일 공장 출입을 시도하였지만, 영훈하이테크 지회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지하여 출입할 수 없었다.
 - 위와 같은 출입저지가 4개월 동안 지속되자, 영훈하이테크는 2023. 2. 15. 화재 후의 잔해, 화재로 소실되지 않은 가건물 일부(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는 가건물 포함)를 철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연심용역과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 후에도 영훈하이테크 지회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저지하여 연심용역 직원들은 출입할 수 없었다
- 영훈하이테크(원고)는 영훈하이테크 지회(피고1), 영훈하이테크 지회장(피고 2, 하이테크승) 및 지회 소속 평조합원들 중 적극 가담자들(피고 3 내지 7, 각 송일섭, 박내군, 배추한, 이복신, 유은분)을 상대로 생산설비 및 원재료 반출 방해, 공장철거 방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 영훈하이테크는 영훈하이테크 지회장 등이 연심용역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연심용역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용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로서 10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녹음파일 '0315'



녹 취 록 『錄 取 錄』

녹음파일이사칼

녹음살길속기사무실



녹 취 록

녹음일시	2019년 3월 15일
녹음장소	
제시자료	녹음파일 0315
대 화 자	영훈하이테크 전무(권두삽), 영훈하이테크 지회 지회장(하이테승)
작성일시	2023년 02월 2일
작성장소	녹음살길속기사무실
기타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본 문서는 본 사무소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위 녹취록은 의뢰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0315

내용과 상위없이

기록 ·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녹음살길속기사사무소



녹음파일 0315

(녹취시작 00 : 00)

○지회장 : 무슨 얘기를,

○전무 : 내 우리 지회장이 다 알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우리 지회장님 좋게 생각하고 아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게 우리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하고 할 때 하더라도

○지회장 : 한 게 뭐라는 말씀이죠? 뭘 한다는 거죠?

○전무 : 지금 이러는게 회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걸 좀 이해를 해야지, 노조에 서도. YJS디스플레이 거기 윤지성 사장이 자기 공장 살금살금 중국으로 옮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납품도 중국에서 받겠다는 거고.

○지회장 : 아니 근데 거기도 YJS디스플레이 거기도 대한금속노조예요,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거고

○전무 : 뭘 가만히 안 있어요. 여기 회사, 법인 차례로 폐업해서 나가는데. 폐업하는데 대한금속노조 할아버지가 와도 뭘 어쩔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지회장 : 그래서요?

○전무 : 내가 이것저것 서류 다밀면서 해 봤자 결국은 싸울 거 아니에요

○지회장 : 서류? 무슨 서류?

○전무 : 주문량이 얼마나 줄었고 매출이 얼마나 줄고. 그런거 해 봤자. 그런데 나는 그냥 조용히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지회장 : 아니 명예퇴직을 또 받겠다면서요

○전무 : 예.

○지회장 : 작년에 명예퇴직을 200명 넘게 받아 놓고 1년만에 또 명예퇴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좀 정도가 있어야지. 물량도 응? YJS디스플레이 중국 간다고 핑계만 대고, 왜 판테서 물량 안 끌어오고 사람들만 계속 내보내느냐고요

○전무 : 어차피 지금 물량 보면 알아서들 많이들 나갈 거 아니에요

○지회장 : 다른데 갈 만한 사람들은 작년에 다 나갔어요. 지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응?

○전무 : 아니 우리 지회장님 화를 내지 마시고

○지회장 : 영훈전공이랑 거 머시냐 한국영훈전공에서 물량을 더 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오성전공에 물량 다 몰아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아니네요. 왜 오성전공에 물량을 몰아주냐고요

○전무 :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답답한데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오성전공 기획팀..(청취불능) 오성전공은 노사관계가 좋잖아, 화목하잖아 이러더라고. 오성전공 거기는 노조가 회사랑 아주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

○지회장 : 거기는 노조가 아니고 그냥 모여가지고 봄가을에 산에 가고 친목놀이 하는 데고

○전무 : 내가 오성전공 거기는 산에를 다니든 들에를 다니든 알바가 아니고

○지회장 : 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무 : 나도 깜깜해서 하는 말이지. 저 무라카미인지 나카무라인지 우리 사장이 오성전공 사장도 하고 있는데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까놓고 말해서 매년 교섭해야 되고 조합원들 집회하고 썰가리 치고. 특하면 설비가 안전하지 않다고 뭐라고 하고, 아니 그게 노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하셔야지. 근데 무라카미 사장이 보기엔 딱

비교가 된다는 말이죠

○지회장 : 우리가 그래도 생산성이 더 좋았잖아요. 어려운 공정도 많이 했고. 근데 작년에 그 사람들 다 내보내놓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네. 또 해고를 시킬라 하니까

○전무 : 지금 노조가 투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 폐업해 버리면 어떡할 거야. 아니 막말로 생산물량 전부 오성전공으로 옮겨버리고 우리는 손가락 빨다가 폐업하면 어떡하냐고

○지회장 : 그런 짓하면 그게 부당노동행위지. 다 고발해 가지고 잡아넣어야죠

○전무 : 그게 그렇게 쉽나. 그렇게 되면 나도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껄껄해 가지고 이렇게..응? 이게 내가 부러 그러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에 전체 전략회의 하러 본사에 갔다왔잖아. 저기 영훈전공에. 다 들은 말이 있어서

○지회장 : 무슨..(청취불능)

○전무 : 대한금속노조 하면 다들 학을 뗌다고 그래. 저기 예전에 천안에서 자동차공장 정리해고 때문에 크게 붙어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걸 일본에서도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비슷한 일이 있을 김새라도 있으면 다 물량 머냐 저기로 다 옮기고 문 닫을 수 있다는 거지

○지회장 : 우리 조합원 이제 겨우 100명 남았는데 참. 하긴 뭘해요. 뭐, 저기 공장 앞에 드러누울까요? 허허. 이번에 또 명예퇴직 시키면 또 우리 조합원들 먼저 나가라 그러겠지. 뭐 두어명이나 남겠어요?

○전무 : 에이 우리가 또 우리 노조에 그러지는 않지. 많이 남으셔야지 많이 남으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번에도 70~80명 감원은 해야 되고. 문 안 닫으려면 시끄러운 일은 없어야지요

○지회장 : 모르겠어요. 저 우리 대의원들하고도 좀 의논해 보고. 대의원들 중에

서는 명예퇴직 소리 나오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바로 파업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무 : 그래요, 의논하셔야지. 잘 좀 생각해 줘요, 나도 실업자 되기 싫고

○지회장 : 먼저 들어가볼게요

○전무 :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녹취종료 22 : 19)

2022. 3. 31. 자 대한금속노동조합 소식지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금속노조 위원장, 영훈하이테크 지회장 인사드립니다.

2021. 7. 1.자 단체협약이 9개월여의 지난한 논의 끝에 드디어 체결되었음을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기쁜 마음 한켠이 무겁기만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서 가장 규모 있는 노동조합으로 자랑스러운 활동을 이어간 우리 지회가 너무나 작아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넘치는 물량으로 밥먹듯이 야근을 하고 있지만 흥이 나지 않습니다. 뜨내기처럼 며칠 왔다 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열 굴도 익히지 못하고 일하는데 무슨 흥이 날까요.

익숙해질만하면 떠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넘쳐나니 사고위험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살얼음판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대한금속노조는 금번 교섭에서 최우선 과제를 정규직 근로자 채용, 고용안정 보장에 두고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선결 과제로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저들은 지금은 물량은 넘쳐나지만 당장 다음달부터는 물량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거짓말입니다. 본사(영훈전공)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회사입니까. 중국에서는 물량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인데 회사가 나몰라라 하는 꼴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오성전공에 몰아주기 하고 있는 것을 모를거라 생각한다면 저들은 우리를 바보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노동청에 두 번이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해 봤습니다. 특별근로감독 대상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이렇게 입맛대로 쓰고 버리는 행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안정적인 생산계획을 세우지 않는 행태,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행태.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묵과하는 것이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대한금속노조라서 싫다고 합니다.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우리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무라카미 사장이 오사카 본점 이사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아주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망언입니까. 고용노동부는 이 반헌법적인 발언을 왜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을 요구한 것이 죄입니까. 대체 현장의 노동자들을 무엇으로 생각하게 저런 망언을 입밖에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조합원 여러분 죄송스럽게도 정규직 채용 요구는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을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단체협약]

제5장 고용안정

제47조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1.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90일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시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서 청산하여야 한다. 단, 퇴직위로금은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3. 회사는 회사의 업종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법상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의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에 사측은 무시로 일관했지만 조합원 여러분의 단결 투쟁으로 또 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고용안정과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싸우겠습니다.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대한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노란

영훈하이테크 지회장 하이테승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경성북도 구미시 구미로 3, 15층 (총경빌딩) / 전화 (054) 3121-1122 / 팩스 (054) 3121-2211

수 신 : 전 직원

제 목 : 휴업명령 시달의 건

담 당 : 인사팀장 문상덕

일 자 : 2022. 10. 5.

알립니다.

어제(2022. 10. 4.) 생산동(棟)에서 심각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진화가 완료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나 생산설비 손상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직원에게 휴업명령을 시달합니다.

- 오늘부터 휴업명령 해제 통지일까지 휴업합니다.
- 휴업기간 동안 법령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안전을 위해 사업장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팀, 인사팀 인원 중 휴업제외 인원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현재로서는 휴업해제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을 원하시는 분은 인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대한금속노동조합

서울 서초구 민주길 3, 15층 (노총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수 신 :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제 목 : 교섭요구

담 당 : 영훈하이테크 지회장 하이테승

일 자 : 2022. 10. 10.

- 노동3권 쟁취! 고용안정 쟁취!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교섭을 바랍니다.
- 2022. 10. 4.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장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원 이하 모든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 현재 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50명을 포함한 전직원 100여명은 화재 피해가 복구되어 휴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YJS디스플레이와의 계약에 따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일치된 마음으로 화재공장의 잔해를 치우는 자발적 모임까지 결성하여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모회사인 영훈전공이 영훈하이테크의 청산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유력한 정보가 노동조합에 입수되었습니다. 급기야 2022. 10. 9.자 지역신문에도 익명의 회사 관계자와 노동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생산이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 이에 당 노동조합은 긴급히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즉시 교섭자리에 나와 현재 회사의 상황, 청산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숨김없이 알리고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 노동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로 3, 15층 (충경빌딩) / 전화 (054) 3121-1122 / 팩스 (054) 3121-2211

수 신 : 대한금속노동조합(영훈하이테크지회)

제 목 : 교섭요구 공문에 대한 회신

담 당 : 인사팀장 문상덕

일 자 : 2022. 10. 11.

귀 노동조합의 건승과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노동조합 2022. 10. 10.자 교섭요구 공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당사와 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현재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인 현재 교섭을 실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당사는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평화가 필수적입니다. 회사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마련하고 있사오니 노동조합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중 퇴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인사팀으로 연락하여 퇴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대한금속노동조합

서울 서초구 민주길 3, 15층 (노총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수 신 :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제 목 : 사업 정상화 촉구

담 당 : 영훈하이테크 지회장 하이테승

일 자 : 2022. 10. 14.

- 노동3권 쟁취! 고용안정 쟁취!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 2022. 10. 4.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회사 정상화를 바라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신하는 회사의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회사의 YJS디스플레이 물량이 쥐도새로 모르게 오성전공으로 넘어간 것도 모자라 회사의 생산설비와 원재료까지 오성전공으로 넘긴다는 것은 노동자를 손톱 밑의 먼지 정도로 여긴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 사측에 요구합니다. 당장 오성전공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회사 정상화에 힘을 쏟으십시오. 정중하게 말할 때 들어먹으십시오.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노동조합은 금일 긴급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결사항전에 나갈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당장 공장 정상화에 착구하지 않으며 이후의 불행한 사태는 모두 회사의 책임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금속노동조합

서울 서초구 민주길 3, 15층 (노총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수 신 :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제 목 : 교섭요구

담 당 : 영훈하이테크 지회장 하이테승

일 자 : 2022. 10. 14.

- 노동3권 쟁취! 고용안정 쟁취!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교섭을 바랍니다.
- 귀사의 단체교섭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현행 단체협약 제47조에 의하면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측은 적어도 90일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현재 회사는 물량과 원자재, 설비 등을 빼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고용조정이 발생할 것이라면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이후의 합의를 위해 진지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회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운운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거나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생긴 지금 현행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보충적인 교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당 노동조합은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경성북도 구미시 구미로 3, 15층 (충경빌딩) / 전화 (054) 3121-1122 / 팩스 (054) 3121-2211

수 신 : 대한금속노동조합(영훈하이테크지회)

제 목 : 2022. 10. 14. 자 재교섭 요구 공문에 대한 회신

담 당 : 인사팀장 문상덕

일 자 : 2022. 10. 15.

귀 노동조합의 건승과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노동조합 2022. 10. 14.자 교섭요구 공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 당사와 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일시는 2022. 3. 31.입니다. 단체교섭이 종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섭을 요구하는 것 당사로서는 다소간 의문입니다. 귀 조합께서 교섭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며, 당사는 귀 조합에 대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 조합께서 강조하신 단체협약 제47조와 관련해, 당시 교섭 과정에 참여했던 경영전략실 HR 담당 전무 권두섭과, HR 담당 상무 점기호 두 분 임원께서 확인해주신 결과, 이는 당사의 경영권 내지는 인사권에 관한 조항으로서, 유효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교섭에 참가한 권두섭 전무, 점기호 상무께서 전해주신 바에 따르면, 당사는 어디까지나 신사협정 차원에서 귀 조합과 해당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귀 조합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입니다. 단체협약 제47조에 관한 귀 조합의 해석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공장의 화재로부터 시작해 당사는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 조합과 감원 계획 등을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당사는 귀 조합께서

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귀 조합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귀 조합 조합원 중 퇴사를 희망하는 인원이 있다면 당사 인사팀 담당자(과장 희원희원, 과장 하경킴)에게 퇴사 안내 서류와, 양식을 수령해 2022. 11. 30. 까지는 제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유례 없는 경영난에서 당사와 귀 조합이 현명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길 희망합니다.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혁신과 미래, 대한금속노동조합

금속&뉴스

22
06호

발행 : 강금속 | 발행일 : 2022.10.29. | 전화 : 02-222-3333 | 팩스 : 02-222-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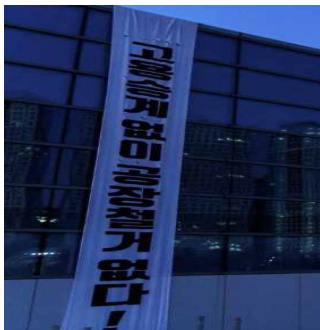
일본 먹튀자본, 노동자를 책임져라 영훈하이테크 설비 반출, 함께 저지!¹



일본 영훈그룹의 계열사인 영훈하이테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무상 토지임대,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으며 18년간 7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는 얼마전 공장 화재사고로 공장 설비가 소훼된 사태를 계기로 공장을 폐쇄하고 남아있는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대한금속노조 영훈하이테크 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100% 찬성으로 쟁의를 의결했다. 그리고 공장 재가동, 대표이사 사과 없이는 결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무기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제대로 된 준비를 할 틈도 없이 시작된 농성이었다.

갑작스럽게 투쟁을 결의한 데는 이유가 있다. 2022. 10. 4.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래 노동자들은 이제나 저제나 정상화만을 기다렸다. YJS디스플레이와의 공급계약이 건재하고 화재보험금으로 공장을 다시 짓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회사는 미적거리기만 했다.





18일 영훈하이테크 연대집회 모습

모회사인 영훈전공이 영훈하이테크의 청산을 염두에 둔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다. 회사는 헛소문이라는 식으로 치부하였으나, 영훈전공 부사장이 대한경제인신문 기자와의 대화 중에 “영훈하이테크는 어차피 문 닫을 생각도 있었는데 마침 불이 났으니 울고 싶는데 뽀 맞은 격이다. 화재보험금으로 재가동할 생각 없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나몰라라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남은 원재료와 생산설비, 생산노하우, 인력 일부도 오성전공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이다. 영업이 양도되면 노동자들도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도 불응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채 마음대로만 하고 있다. 일부 인원만 이전시킨 후 폐업해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해결할 방법은 교섭을 통한 고용안정보장뿐이다. 영

훈하이테크에는 고용안정 관련 단체협약이 있다. 이 단체협약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한금속노조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

대한금속노조 위원장은 “40만 조합원들과 함께 반복되는 먹튀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금속노조는 매주 금요일 영훈하이테크 앞에서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금속노조 법률원

법규사업이 필요한 노동조합

상담 / 소송 / 교육 문의

010-010-0101 / 김득준

[기고] 대한금속노조 법률원 박주염 노무사

회사의 손익변동은 자본주의 경기순환의 변동만큼 오르내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을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꼭 있기 마련이다. 회사가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신호를 사용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는데 이용하는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회사는 현장에 작은 변화를 주다 점점 물량을 빼가고, 기계를 빼가면서 위기를 만든다. 회사는 어느 시점이되면 노동조합의 주력이 조직된 사업장이나 부문을 통째로 문을 닫아버린다. 최근 우리 노조가 겪는 폐업의 모습이다. 겉보기에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져 내리는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한 꺼풀만 들춰내면 노동조합이라는 허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공장폐쇄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

다.

해외공장 이전을 통한 노동조합 정리플랜은 오래전부터 시작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품은 증오는 역사가 깊은 노동조합일수록 오래되고 해묵은 것이라 질기고 이악스럽다. 대표적으로 콜트와 콜텍의 시작도 그러했다. 1987년 콜트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면서 기나긴 갈등이 계속됐다. 회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해외 공장을 설립, 기술이전을 시작하면서 언제든지 국내 공장을 정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왔다. 기술이전을 완료한 회사는 해외공장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즈음 콜텍지회의 설립은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공장폐쇄와 기계반출로 이어졌다.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기 위한 공장폐쇄

일단 사용자가 폐업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폐업은 사용자의 순수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한마디로 “내가 내 돈 가지고 장사 그만하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라는 주장인데, 자본주의 질서 아래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의 경우 사용자는 노동법상 아무런 해고제한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른바 ‘통상해고’라는 것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 자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 중 하나로 폐업을 선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폐업에 대한 노동법적 한계는 사용자의 위장폐

업 즉,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폐업을 한 후 다른 법인을 통해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업이 인정될 경우, 폐업 전후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무효를 인정받을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폐업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폐업 이후 다른 회사를 통해 영업을 계속한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기계가 반출되면 폐업은 기정사실화

폐업한 사용자에 대한 법원의 무한한 관용은 다양한 방식의 위장폐업을 만들어낸다. 사용자는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가시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기계를 내다판다. 사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기계설비는 전체 사업의 자산에 비하면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기계반출만큼 좋은 구실도 없다.

최근 (주)케***은 지회와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서 폐업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대표이사의 가족이 운영하는(사실상 동일한 사업주로 의심되는) (주)삼***에 기계설비를 매각하고자 했다. 지회에서 기계반출을 막은 행위에 대해 회사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회의 기계반출 저지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이고, 사용자의 기계매각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보전의 이익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기각결정을 했다(창원지법 2013. 2. 12. 선고, 2012카합672 결정, 기계반출방해금지가처분 기각, 항고심에서 화해 성립).

사용자와 유관 있는 기업과의 관계와 지배구조를 읽어내고 기계반출을 저지한 지회의 활동은 위장폐업의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한 방법으로 의미 있는 시도였다. 위장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처분을 통해 폐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법률대응은 특히 등기말소와 같은 폐업의 외관을 갖추지 않은 공장 폐쇄의 경우 적절히 필요하다. 언제든지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잃지 않는 것이 위장폐업을 인정받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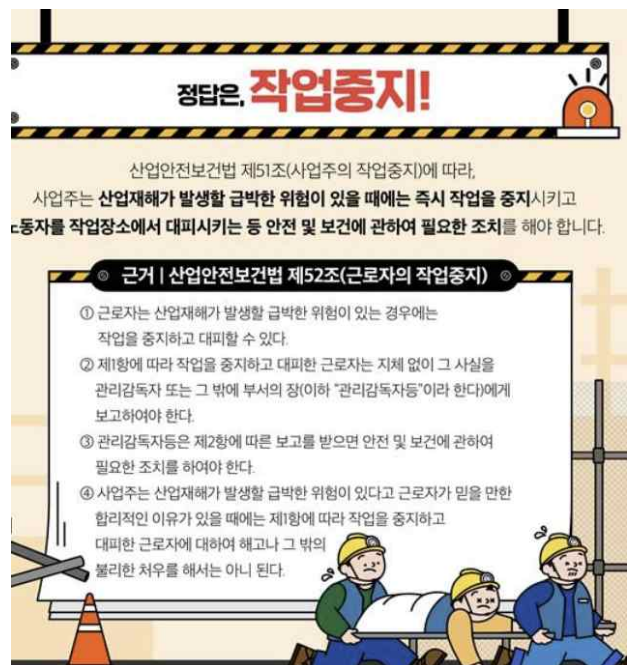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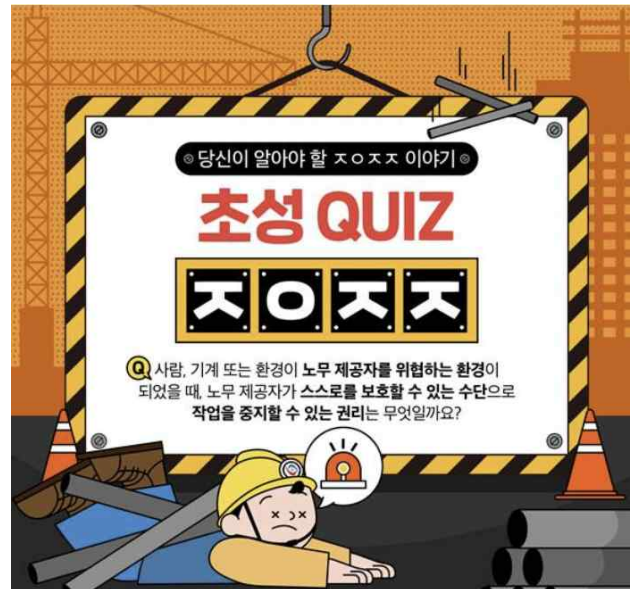
말은 폐업, 그러나 계속 영업을하는 기업

문제는 법원이 사실상의 폐업을 인정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폐업’이란 영구적으로 해당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의사로서, 법인의 경우 청산절차 등 모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도 완전히 폐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법원은 언제든지 다시 동일한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사실상의 폐업’에 대해서도 폐업으로 인정, 정리하고 정당성과 상관없이 근로관계의 단절을 허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미 법원은 정리해고의 경영상 긴박성의 요건을 폭넓게 해석해주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폐업의 개념 자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정리해고 제한법리 자체를 손쉽게 벗어나는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 되서는 안 된다.

일부 하급심에서 일부 폐지하는 사업이 잔존하는 사업의 내용과 상이하면, 정리해고절차 없이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노동법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 폐업을 규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해석이 필요하다. 끝.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경성북도 구미시 구미로 3, 15층 (총경빌딩) / 전화 (054) 3121-1122 / 팩스 (054) 3121-2211

수 신 : 대한금속노동조합(영훈하이테크지회)

제 목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중단 요청

담 당 : 경영전략실 전무 권두삼, 상무 점기호

일 자 : 2022. 10. 30.

당사는 귀 노동조합에 유감을 표합니다.

귀 노동조합은 2022. 10. 14. 자로 쟁의행위를 개시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현재 귀 조합께서 단행하고 계신 일련의 쟁의행위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고지합니다.

- 우선 귀 조합의 쟁의 개시 통보에 당사는 매우 당혹스러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2. 10. 15. 자 공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의 경영권, 인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귀 조합은 통상적인 쟁의 전례와 달리 조정 신청을 제기한 바 없습니다. 당사와 귀 조합 사이의 노사관례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가능성이 존재했을 법인데,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한 귀 조합의 태도는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 당사는 사업의 정상 운영을 시도하고,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오성 전공과 시설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귀 조합은 2022. 10. 16.부터 공장 앞 정문에서 불법 집회, 불법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것으로 모자라, 당사의 시설 이전 작업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귀 조합이 현재처럼 다수의 조합원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시설이전 작업을 방해하는 것은 태양 그 자체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귀 조합이 계속 하고 있는 불법 쟁의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공문 수령 이후에도 귀 조합이 현재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를 계속 할 경우, 당사로서는 본격적인 민 형사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귀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불법 쟁의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를 구성하기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특히 당사의 인사팀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 조합 소속 5명의 당사 직원(송일섭 계장, 박내균 기장, 배추한 주임, 이북신 기장, 유은분 계장) 들은 지난 16일간 당사와 설비 이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연심 용역의 철거 작업을 가장 선두에서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쟁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불법 쟁의행위를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대한금속노동조합

서울 서초구 민주길 3, 15층 (노총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수 신 :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제 목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협박 중단 요청

담 당 : 지회장 하이테승, 부지회장 장서구, 쟁의부장 지아박, 진최솔, 김금진

일 자 : 2022. 11. 11.

- 고용안정 쟁취! 부당노동행위 분쇄! 위장폐업 저지!
- 귀사가 발송한 2022. 10. 30. 자 공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본 공문을 통해 귀 사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 현재 우리 노동조합이 진행 중인 쟁의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입니다. 조합원의 찬반 투표로 민주적으로 결정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폄훼하는 귀 사의 입장에 유감을 표합니다.
- 이번 쟁의행위를 일전의 노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귀 사 는 우리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47조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효력을 부인 하며, 보충 교섭과 단체협약 제47조에 따른 노사 합의를 위한 대화를 거부해왔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원 조치를 개시하려는 모습을 보 였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기에 쟁의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 은 사정만을 들어 우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 쟁의로 매도하는 귀 사의 입장에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적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노동조합 도 귀 사의 부당노동행위적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귀 사는 단체협약 제47조를 거부하며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합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멸절한 공장 시설까 지 전부 이전하려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단체협약 제

47조를 위반한 것이며, 우리 노동조합은 귀사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대응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 또한 귀사가 우리 노동조합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을 모자라, 공문을 통해 평 조합원 5인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귀사가 언급한 박내균 기장을 포함한 5인의 조합은 우리 조합에서 아무런 직책을 갖지 못한 평조합원에 불과하며, 귀사가 주장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쟁의 절차를 민주적으로 결의했으며, 현재는 쟁의 비상대책 본부 지도부(지회장 하이테승, 수석부지회장 장서구, 쟁의부장 지아박, 진최솔, 김금진)를 중심으로 쟁의 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단순히 참여하고 있는 평조합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률상 책임과 징계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 우리 조합의 쟁의행위가 중단되기를 소망한다면, 귀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형사 고소 등의 협박을 운운하기보다, 합리적인 고용 안정 방안을 모색해볼 것을 권합니다. 지금이라도 단체협약 제47조에 따라 노사 합의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경성북도 구미시 구미로 3, 15층 (총경빌딩) / 전화 (054) 3121-1122 / 팩스 (054) 3121-2211

수 신 : 대한금속노동조합(영훈하이테크지회)

제 목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중단 요청

담 당 : 경영전략실 전무 권두삽, 상무 점기호

일 자 : 2023. 2. 20.

당사는 귀 노동조합에 다시금 유감을 표합니다.

귀 노동조합은 2022. 10. 14. 자로 불법 쟁의행위를 통보한 뒤, 현재까지 4개월간 당사의 각종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설비 이전을 위한 연심용역회사의 작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부족해, 2023. 2. 15. 이후 부터는 화재 현장 철거 작업까지 방해하고 있는 귀 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그 어떠한 정당성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당사는 2022. 10. 30. 자 공문을 통해 귀 조합에게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고, 당사의 경영전략실 임원 2인(권두삽 전무, 점기호 상무)와 인사팀 담당자 2인(희원희원 과장, 하경킴 과장)을 통해서도 귀 조합 간부(지회장 하이테승, 수석부지회장 장서구)에게 여러 차례 불법 쟁의행위의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귀 조합이 무리한 불법 쟁의행위를 감행한 탓에 당사의 경제적 손실 역시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심용역회사가 용역계약에 따라 당사에게 청구한 비용은 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난과, 귀 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 당사는 최종적으로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경고해두지만, 회사는 경영의 계속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재산권 및 경영권에 따라 폐업의 자유를 향유합니다. 향후 불법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회사가 개시할 폐업 절차에 원만히 협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당사는 4개월간 지속된 귀 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테승 지회장은 물론이며, 당사가 유의 깊게 지켜본 5인의 당사 직원(송일섭 계장, 박내균 기장, 배추한 주임, 이복신 기장, 유은분 계장)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귀 조합이 2022. 11. 1. 자로 설명한 쟁의 지도부의 구성은 당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며, 당사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고지합니다.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대한금속노동조합

서울 서초구 민주길 3, 15층 (노총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수 신 :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제 목 : 부당노동행위성 협박에 대한 최후 통첩

담 당 : 지회장 하이테승, 부지회장 장서구, 쟁의부장 지아박,진최솔,김금진

일 자 : 2023. 2. 21.

- 고용안정 쟁취! 부당노동행위 분쇄! 위장폐업 저지!
- 귀사가 발송한 2023. 2. 20. 자 공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본 공문을 통해 귀사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귀사의 공문을 확인한 후 더욱 단결하여 굳세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 우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주장은 당사의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부당노동행위적 협박에 불과합니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습니다.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협약 위반. 노사 합의 절차 거부. 불법 인원 감축이라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존재했습니다.
- 우리 노동조합이 귀사의 설비 이전, 화재 시설 철거를 저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불법행위를 운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언급하기 앞서 당사의 범죄행위를 먼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리 노동조합과 신의로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 제47조의 효력을 부인하며, 인력 감축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어떠한 합의 절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단체협약 제47조를 단순히 신사 협정으로 매도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적 태도에 대해서는 분노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노동조합의 오랜 투쟁 끝에, 고용 안정을 위

해 쟁취한 조항입니다. 사측 교섭 위원인 권두삽 전무, 점기호 상무는 이를 ‘당사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밝히며 단체협약 제47조 문언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을 인사권에 관한 조항이라고 효력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신사협정과도 같은 문구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돋보이는 지점입니다.

- 즉 귀사가 추진하고 있는 설비 이전, 화재 시설 철거는 단체협약 제47조를 위반하여 인원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실행의 일환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지극히 정당하며, 불법성을 운운하는 귀사에게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의 범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 귀사는 임원 2인(권두삽, 점기호), 인사 과장 2인(희원희원, 하경킴)을 통해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적 발언을 계속한 것으로 부족해, 2023. 2. 20. 자 공문을 통해 폐업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으로서는 이와 같은 폐업 의사 역시 귀사가 보인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적 태도의 연장은 아닌지 지극히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귀사는 화재 발생 이전까지 7조 7천 102억원이라는 막대한 매출을 올렸고, 일본 자본인 영훈정공이 가져간 이윤만 1천 734억원입니다. 화재보험금 역시 200억원 가까이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한 폐업을 운운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 특히 귀사는 폐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생산관리자와, 엔지니어들에게는 오성전공으로 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유독 우리 생산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폐업과 해고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공문에서 이를 직접 밝히는 것을 지양하려 했었지만, 귀사 권두삽 전무가 하이테승 지회장에게 노조 설립 초기부터 ‘대한금속노조만은 안된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는데, 귀사의 폐업에 다른 의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 마지막으로 공문을 통해 평 조합원 5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법률적 책임을 운운하는 귀사의 태도는 부당노동행위를 언급하기 앞서, 노사간의 최소한의 예의를 상실한 태도임을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쟁의본부(지회장 하이테승, 수석부지회장 장서구, 쟁의부장 지아박,진최솔,김금진)의 지도 하에 조합원들의 민주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 조합원들에 대한 손배, 해고 협박을 계속 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투쟁 수위를 더욱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우리 노동조합은 귀 사의 부당노동행위적 협박에 굴해 투쟁을 중단할 계획도, 일말의 의사도 없습니다. 귀 사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면 계속 될수록 우리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영혼 자본의 탄압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귀 사로서는 하루 빨리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단체협약 제47조에 따라 고용 안정 합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견적 및 청구서		
주식회사 영훈하이테크 귀중		주식회사 연심용역 서울 서초구 법원길 3 향지빌딩 2층 대표이사 유연심
총 금액 : 일금 십억원정		
항목		산출 내역 및 합계
2022. 10. 15. 자 용역 계약에 따른 설비 및 원자재 반출, 이전 작업		
중장비 대여비(임대사 : 다운건설기계)		60,000,000원
기타 인건비(노역 인부 80인) 투입기간 : 2022. 10. 16. ~ 2023. 2. 20. 중 100일		1. 인부 1인 단가 : 1일 100,000원 2. 최종 산정 : 100,000원 × 90인 × 100일 3. 최종 비용 : 900,000,000원
2023. 2. 15. 자 용역 계약에 따른 화재 잔해, 가건물 철거 작업		
중장비 대여비(임대사 : 지영건설렌탈)		10,000,000원
기타 인건비(노역 인부50인) 투입기간 : 2023. 2. 16. ~ 2023. 2. 21. 6일		1. 인부 1인 단가 : 1일 100,000원 2. 최종 산정 : 100,000원 × 50인 × 6일 3. 최종 비용 : 30,000,000원
합 계		1,000,000,000원
견적담당자 : 점다운 부장(02-3333-2222), 대금결제 조건 : 협의, 견적 유효기간 : 3개월 입금 기한 : 2023. 2. 21. 까지 연심 용역 계좌(향지은행 111-111-1111-111) 입금 요망		
2023. 2. 21.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¹ 증거번호9. 노동조합 소식지 “일본 먹튀자본, 노동자를 책임져라 영훈하이테크 설비 반출, 함께 저지!”는 민주노총법률원 박주영 노무사의 기고글“노동조합을 없애려는 폐업 [법은 창과 방패다 3] 회사가 만든 위기로 뺏긴 노동자 권리”(ilabor, 2013.04.03. 원문링크 <https://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3427>)를 참조해 작성했습니다.